

환경처 출입이후 달라진 생활

나는 환경문제에 관해 햇병아리 기자다. 과천 정부종합 2청사에 있는 환경처를 출입한 지 불과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내가 여기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글을 쓰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환경분야 햇병아리 기자가 한 달여 환경처를 출입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솔직하게 피력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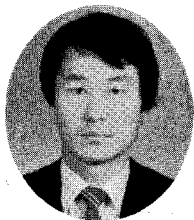
우선 환경처가 내가 지금까지 10년간 기자생활을 하면서 출입해왔던 교육부, 노동부, 서울시청등 어느 정부부처와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느꼈다. 다른 부처보다도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 같다. 물론 BOD나 COD, 산성비 또는 ppm의 의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환경에 관한 전문용어들은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것들이었다.

환경처를 출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올 5월 대기오염도에 관한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 자료를 받아든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은 『울산시의 TSP가 단기기준을 초과했다』는 등의 말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 물론 나는 당연히 TSP가 어떤 의미를 지닌 용어인지 몰랐다. TPS가 먼지를 뜻하는 용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고는 앞으로 환경에 관해 공부할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사실 나는 환경처를 출입하기 이전에도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편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에 대한 관심이 어릴 때부터(?) 많았다. 이런 기억이 난다. 중학교 2학년때니까 24년전인 70년의 일이다.

전 학년생이 모인 가운데 열린 아침조회중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장에 시커먼 연기가 나올 때까지 우리 국민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요지로 근대화를 강조했다. 당시는 朴正熙대통령이 근대화의 기치를 높이 쳐들고 「경제개발 최우선정책」을 밀어부치던 때였다. 당시 나는 어린 마음에도 교장 선생님의 말을 수긍할 수 없었다. 시커먼 공장연기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파괴하면 하나도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좀 덜 먹고 입고 더 가난하게 살더라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다면 차라리 가난쪽을 택하겠다는 나의 마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따지고보면 우리나라의 환경이 이처럼 파괴된 이유는 지난 60년대부터 우리사회의 가치관을 지배해 온 경제개발 제일주의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경제부처의 관리중 상당수는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경제만 개발하면 됐지, 환경같은 배부른 소리 하지말라』며 경



李南錫
(세계일보 사회부 기자)

제개발 논리에 완전히 져어있다. 이런 분위기하에서는 환경보전에 힘쓰자는 말은 씨알도 안 먹힌다.

환경처 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그래도 요즈음은 이같은 경제개발 제일주의가 많이 누그러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아직 환경처가 정부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초라하기 그지없으며 경제개발논리가 환경논리를 압도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환경처 출입 한 달만에 느낀 또 다른 점은 정확환 환경기사를 쓰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기자가 어려운 용어가 섞여있는 보도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면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정확한 기사를 쓰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용어를 독자들에게 잘 이해시키려면 쉬운 다른 말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확한 의미의 전달은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게다가 다른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도 마찬가지로지만 환경처를 출입하는 기자들도 자기가 쓴 기사를 크게 보도하기 위해 이른바 「뺑튀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산성비문제만 해도 그렇다. 매달 산성비에 관한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지만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 가장 심한 경우만을 골라 쓴다. 가령 한 달 중 내린 비가운데 산성도가 심한 경우도 있고 산성도가 약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나를 포함한 기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산성도가 가장 심하게 나타난때의 산성도를 그 지방의 산성도로 보도한다.

평소에 없던 환경의식이 하루아침에 생길 수는 없다고 본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녀석이 아침마다 「뺑뺑뺑」에서 환경보호프로그램을 보고는 나에게 「아빠, 우리는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고 말한다. 이를 보고 역시 환경의식은 어릴때부터 길러주어야 한다고 새삼 느낀다.

이같은 사례는 또 있다. 얼마전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낙동강 디클로로메탄 오염사고때 세계일보를 비롯해 모든 신문들이 디클로로메탄을 발암물질로 보도했다. 디클로로메탄이 발암물질인 것은 틀림없지만 디클로로메탄으로 오염된 낙동강물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금방이라도 암에 걸릴 것처럼 표현했다. 기사를 키우기 위해서다. 이같은 「뺑튀기 보도」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에 보다 많은 경각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정확한 진실을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셈이다.

나는 환경처를 출입하면서 나의 환경의식이 이전보다 좀 더 발전했음을 스스로 느낀다. 아내에게 달걀이나 생선을 굽고 난 후 후라이팬에 묻어있는 폐식용유를 세계로 닦지 말고 부엌종이로 닦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내는 종이로 폐식용유를 닦기도 하지만 바쁠 때는 세계를 사용하는 편리함을 선택한다. 또 세탁기에 절대로 일정용량 이상의 합성세제를 사용하

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아내는 나의 이런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인지 요즈음 세계를 일정용량 사용하지 않는다. 음식쓰레기를 버릴 때에 물기를 완전히 빼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말이 쉽지 사실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같은 사정은 아마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평소에 없던 환경의식이 하루아침에 생길 수는 없다고 본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녀석이 아침마다 「뺑뺑뺑」에서 환경보호프로그램을 보고는 나에게 「아빠, 우리는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고 말한다. 이를 보고 역시 환경의식은 어릴 때부터 길러주어야 한다고 새삼 느낀다. 최근 어떤 여론조사기관에서 국민학교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환경보호에 충실히 실천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은 환경의식이 없는 편」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 부모세대는 물론 우리세대들은 그동안 먹고살기에 바빠서 환경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나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오염되고 더러운 자연이 아닌 깨끗하고 맑고 쾌적한 자연을 물려주어야만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나는 환경처를 출입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긴다. 나의 소박한 환경의식을 이론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K>